

반대가 몰아치는 시기에 굳건하게 남음

커틀랜드에서 일어난 배도: 교회 지도자들을 충실하게 따라야 할 필요성

1837년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의 성도들은 재정적인 난관에 부딪혔다. 조셉 스미스와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좀 더 재정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은행과 유사한 회사를 세우고 그것을 커틀랜드 세이프티 소사이어티[Kirtland Safety Society]라고 불렀다. 이 시기에 널리 퍼진 경제 공황의 여파로 전국의 많은 은행들이 파산했다. 커틀랜드 세이프티 소사이어티도 1837년 가을에 파산했다. 은행에 투자했던 이백여 명은 거의 전 재산을 잃었고, 조셉 스미스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그 누구보다도 손해가 막심했다. 커틀랜드 세이프티 소사이어티가 교회 자본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었음에도, 일부 성도들은 그것을 교회 은행 또는 선지자의 은행이라고 여겼으며 그들에게 닥친 재정 문제에 대해 조셉 스미스를 비난했다. 일부 성도들은 심지어 그를 타락한 선지자라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른 많은 성도들은 은행의 파산으로 돈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안에서 충실하게 남아 선지자에 대한 신의를 지켰다.

많은 성도들 사이에 결점 찾기와 배도의 분위기가 확산되어 갔다. 1838년 6월까지 대략 200 내지 300명이 배도하여 교회를 떠났는데, 여기에는 사도 세 명, 물몬경의 세 목격자, 제일회장단의 일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브리검 영이 그랬듯이,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앙이 시험을 받던 그 시기를 잘 헤쳐 나갔다. 주님께서 성도들을 강화해 주셨고, 성도들은 자신의 간증을 충실하게 지켰다. 이 배도의 시기에 교회를 떠난 사람 중 몇몇은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교회에 재합류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올리버 카우드리, 마틴 해리스, 룩 존슨, 프레드릭 지 윌리엄스가 있다.

커틀랜드에서 이런 고투를 벌이는 중에 배도자 몇 명이 조셉 스미스의 암살을 도모했다. 영의 경고를 받아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은 1838년 1월 12일 밤에 커틀랜드를 떠났다. 암살자들이 여러 날 동안 뒤를 쫓았으나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 1838년 3월 14일, 그들은 가족과 함께 미주리 주 파웨스트에 도착했다.

그룹별로 다음 질문을 토론한다.

- 이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삶에서 부딪히는 반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어떤 원리들을 배울 수 있는가? 이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교회에 대한 반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어떤 원리들을 배울 수 있는가?

- 다른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것을 듣게 되더라도,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 충실하게 남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여러분이 선지자를 따랐을 때 어떤 면에서 축복을 받았는가?

미주리 주 북부에서 불거진 갈등: 반대를 잘 견디는 법을 배움

1837년과 1838년에, 파웨스트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교회에 반감을 품고 파문된 교회 회원들이 교회와 지도자들을 상대로 고소하고, 교회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1838년 6월에 시드니 리그돈은 “소금 설교[Salt Sermon]”라고 알려진 격렬한 연설을 했는데, 그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성도들 사이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의미로 마태복음 5장 13절을 인용하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 버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2주 후인 7월 4일, 또 한 번 연설에 나선 시드니 리그돈은 그것이 “전멸시키는 싸움”이 될지라도 성도들은 자신들을 지켜 낼 것이라고 단언했다. “평화를 탄원하라”(교리와 성약 105:38)는 주님의 지시와는 모순되는 듯했음에도 이 두 연설의 원고가 모두 발행되었으며, 그것은 후기 성도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불안을 야기했다.

이 시기에 샘프슨 아바드라는 개종자는 대나이트스[Danites]라는 습격 조직을 결성하여, 자기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에게 비밀 서약을 하게 했다. 아바드는 그들에게 미주리 주민들을 약탈하라고 지시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바드는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자신의 지시가 제일회장단에게서 온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이후에 진실이 밝혀지고, 아바드는 파문당했다. 아바드의 행동은 교회의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지자가 리버티 감옥에 수감되는 데에도 일조하게 된다.

1838년 10월에 일부 교회 회원들과 미주리 주 민병대 사이의 전투로 양쪽 진영에서는 몇 명의 전사자가 생겼다. 그 전투에 대한 과장된 보고서가 미주리 주 주지사인 릴번 더블유 보그스에게 전달되었고, 이에 보그스 주지사는 근절령으로 알려지게 된 법령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몬을 적으로 간주하여 근절시키거나 주에서 추방해야 한다.”(History of the Church, 3:175에서 인용) 곧, 파웨스트 시는 성도들의 병력보다 다섯 배가 훨씬 넘는 민병대에 포위되었다. 그때 조셉 스미스와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은 리버티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고, 겨우내 그곳에 갇혀 지냈다. 성도들은 미주리 주에서 강제로 쫓겨났다.

그룹별로 다음 질문을 토론한다.

- 우리가 반대를 더 잘 견디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원리들을 이 사건들에서 배울 수 있는가?
- 위기나 역경의 시기에 우리 각자가 구주의 모범을 따르는 것은 왜 중요한가? 미주리 주 북부에서 일부 성도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언행 덕분에 다른 누군가가 교회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된 어떤 사례를 본 적이 있는가?

